+

광복 80주년…전남학생 '義 교육 축제 한마당' 연다

13-1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서 7기 전남학생의회 주도…'미래' 주제 학술·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 학생들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의(義) 교육' 축제가 열린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제7기 전남학생 의회가 주도하고 전남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남 의(義) 교육 학술·문화 축제'가 오는 13-14 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다.

'되찾은 빛으로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 리는 이번 축제는 배움·공론·공유의 세 장을 중 심으로 전남의(義)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나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등 2 천여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30분부터 열린다. 식전 공연으로는 순천 615합창 단이 무대에 올라 항일음악 330곡 중 연대별로 5 곡을 엄선해 부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어지는 창작 뮤지컬 'K-민주주의 외침'은 학생의회와 교직원, 공연단이 함께 한 무대로, 전남 의(義) 교육의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는 프 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초·중·고 학생 110명이 참여하는 '민주·역사 골든벨'도 관심을 모은다. 일제강점기부터 근현 대사까지의 역사 지식은 물론, 전남 의인의 삶과 정신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며 학생들이 역사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3일 오후 1시 의식과 지역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 를 제공한다.

> 전남의(義) 교육의 실천을 함께 나누는 전시・ 공연·체험 프로그램은 이틀간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학생자치회와 지역교육지원청, 문화 원, 유관기관 등이 함께 운영하며 '평화·정의·인 권·민주'를 주제로 한 40여개의 체험 부스와 전

시,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빛으로 만나는 '전남 의(義) 80인전'은 광복 의 인 80명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는 전시로, 인공지능 (AI) 복원 영상, 플래카드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게 구성된다.

축제 분위기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빛으로 터트리는 의(義) 공연'은 팝업 형태로 다목적홀 무대에서 진행된다. 5·18 정신을 담은 함평 1인극, 전남교직원학부모 합창단의 무대, 학생 댄스팀의 K-POP 공연, 뮤지컬 '영웅' 갈라 쇼, 교사밴드의 이순신 이야기 등 다채로운 무대 가 마련돼 관람객의 발길을 붙든다.

체험형 부스에는 ▲강진 의인 명언 머그컵 만 들기 ▲회순 의병 가상현실(VR) 체험 ▲동학농 민운동 '사발통문쓰기' ▲독립운동가 굿즈 제작 (아크릴 스탠드, 지비츠) 등 지역과 시대를 넘나 드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준비됐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이번 축제는 학생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교 육의 현장이며 전남 의(義) 교육의 가치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 대가 의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광주시고등학교학생의회 소속 학생의원들이 최근 부산과 김해 일대에서 열린 '2025 고등의회 여름 자치캠프'에 참여한 가운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5 광주 고등의회, 여름날 민주주의를 論하다

市교육청, 부산서 '여름 자치캠프' 특강·정책마켓 등 민주주의 체험

광주시교육청은 4일 "지난달 30일부터 2박3 일 일정으로 부산과 김해 일대에서 '2025 고등의 회 여름 자치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광주시고등학교학생의회 소 속 학생의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실천하는 고등의회, 행동하는 학생시민'을 주제로 다양 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의원들은 첫째 날 부산 일대에서 자유롭 게 소통하며 퀴즈와 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해 봉화마을에서 '민주캠프 프로그 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대통령의 집'과 '깨어있는 시민' 문 화체험전시관 관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해시칼리지 하효숙 교수의 '미디어 바로 읽기' 민주주의 특강 등을 들으며 역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체험했다.

또 정책마켓을 통해 학생의 시각에서 학교와 광주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고 실행 가능 성을 논의했다.

자치축제에서는 재능을 발산하고 학교 자치 활동의 미래를 모둠별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시 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학생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 기에도 3차 정기회 운영, 의장단 협의회, 부산과 의 학생의회 교류 등 온·오프라인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캠프에 참여한 김서영(살레시오여고 3학년) 학생은 "정책마켓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정책 을 직접 구상하고 동료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됐 다"고소감을 밝혔다.

최장우(광주서석고 3학년) 학생은 "다른 학 교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치활동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 생자치 역량이 증진되도록 더욱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겠다"고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광주 고등의회는 학생 자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학생들 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밝혔다. /김다이기자

道교육청, 베트남서 '전남미래국제고' 첫 유학생 면접

유학생박람회 참가 등 홍보 활동도 11월 국내 이주배경 학생 전형 진행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앞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의 운영 준비에 나섰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베트 남 하노이에서 전남미래국제고 2026학년도 외 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한 현지 면접을 실시하 고, '2025 하노이 한국 유학박람회'에 참가해 202

베트남 현지 면접은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공식 선발 일정으로,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기대감 을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7학년도 입학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면접 심사에서는 한국어 능력, 한국에 대한 이해도, 진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면접 현장에는 입학 지원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 여해 전남미래국제고 지원 동기와 학습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남미래국제고는 설비시스템과, 스마트전 기과, 건축시공과 등 3개 학과를 중심으로 한국 어 교육과 직업 관련 전문 교과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및 외국 인 유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과 글로 벌 진로 역량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예정이다.

전남미래국제고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즈 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도 외국인 유 학생 모집을 진행 중이며 각국 현지 기관 및 학 교와 협력해 2026학년도 입학자를 순차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이주배경 학생 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형도 올해 11월부터 진 행할 예정이다. /김다이기자

'웰에이징' 조선대, 고령친화대학 정회원 승인

국제협의체 AFUGN…국내서 세 번째

조선대학교는 4일 "전 고등교육기관이 참여 하는 고령친화대학 글로벌 네트워크(AFUGN: Age-Friendly University Global Network) 呈 부터 정회원 자격을 공식 승인받았다" 밝혔다.

AFUGN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전 생애에 걸친 포용적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12년 아일랜드 더블린시티대학교 (Dublin City Univ ersity)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다.

현재 전 세계 110여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 며, 고령친화적 교육·연구·정책 실행을 위한 공 동 실천과 경험 공유를 촉진하고 있다.

조선대는 이번 가입을 통해 고령친화 대학 운 켜 가고 있다.

영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국내에 서는 배재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정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AFUGN 사무국은 지난달 28일자로 조선대 의 가입을 승인했으며, 공식 서한을 통해 "조선 대가 고령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울여온 정책 ·연구·서비스·프로그램 전반의 지속적인 노력 은 찬사를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

조선대는 ▲치매예측 기반 의료빅데이터 연 구 ▲고령친화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지자 체와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고령친화 및 전 생애 웰에이징 실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 /김다이기자



+